

현대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 「인권」 기술의 분석

- '시민성' 을 육성하는 한·일의 인권교육의 시점을 바탕으로 해서 -

후쿠다 요시히코

에히메대학 교육학부

1. 문제의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제시된 「인권」 기술의 분석을 통해 「시민성」을 육성하는 한·일의 인권교육의 시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인권의 세기」라고 불리는 현대에서 「인권」을 둘러싼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능동적인 「시민」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과 능력이다.¹⁾ 「인권」을 둘러싼 역사를 읽어 보아도, 194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인권선언」은 전후의 민주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민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어 왔다. 그 후, 인권의 보장을 향해 국경을 초월한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 때문에 유엔은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1995~2004년)을 실시하고,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 계획」(2005년)의 개시가 선언되었다. 그 「제1단계」(2005~2007년)에서는 초·중등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결정되어, 구체적 내용을 정한 「행동 계획 변경안」이 채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아동의 권리 조약」을 비롯한 인권 관련의 제 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일본국 헌법 아래에서 인권에 관한 제반 시책이 강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의 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살펴보면, 「인권교육·계발에 관한 기본 계획」(2002년)이나 「인권교육의 지도 방법 등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2004~2008년) 등 인권교육의 충실을 지향한 지침이 학교 현장을 향해 제시되고 있다.²⁾

한편, 한국에서는 민주화가 진행된 1990년대 이후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을 향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법」(2001년)의 제정에 의해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와 민주적인 기본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인권」이념의 실현화에 대응하고 있다.³⁾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인권 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⁴⁾에서는 인권교육의 집필 기준이나 인권 친화적 교과

1) 법무성에 의하면, 「기본적 인권을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인 권리로서 「알고 있다」(77.8%→82.8%)라고 대답한 자의 비율은 전회 조사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모른다」라고 대답한 자의 비율이 17.2%를 차지하고 있어, 그 결과로 보아도 기본적 인권에 관한 주지도가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法務省, 『平成25年度版 人權教育・啓発白書』, 2013.

2)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 지적 이해와 인권 감각의 배양을 기반으로 해서, 의식, 태도, 실천적 행동력 등 다양한 자질이나 능력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교육」이라고 규정되어, 인권교육을 통해 길러져야 할 자질·능력은 ①지적 측면, ②가치적·태도적 측면, ③기능적 측면의 3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文部科学省, 『人權教育の指導方法等の在り方について(第三次取りまとめ)―指導等の在り方編―』, 2008.

3) 金東勲(訳), 『資料紹介/韓国の「国家人權委員会法」を概観する』部落解放・人權研究所, 部落解放研究 (143), 2001, pp.60-78.

4) 본 설명회는 2007년 9월 19일에 국회 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되었다. 본 설명회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의 의미를 「인권에 반하는 것」이나 「인권에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교과서의 도입을 위한 설명회』, 2007, p.1.

서의 의미 등을 제시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각 교과서에서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다양한 과제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의 일본과 한국에서의 「인권」 이념의 실현은 양자 모두 충분한 것은 아니다.⁵⁾

일본에서는 이지메나 체벌 등 아동들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의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결혼 이주자, 탈북자의 권리 등 국외자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화의 급속한 진행이라고 하는 일본이 안고 있는 인권 문제와는 상이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과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절실한 문제로서 여성,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범죄 피해자 등 많은 문제가 있고 한·일에 공통된 인권교육의 과제도 많다. 이러한 한·일의 인권교육을 둘러싼 상황 중에서 사회과교육은 어떻게 그 과제에 대응해 가면 좋은 것일까? 그를 위한 관점이 「시민성」의 육성⁶⁾이라고 하는 관점이다.

일본이나 한국에서 학교의 공적 커리큘럼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과는 「시민성」을 육성하는 교과다. 따라서 한·일의 「사회과」에서 취급하는 교재의 공통점에 눈을 돌려 교재 개발을 진행해 감으로써 서로의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보이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이러한 국경을 넘은 사회과교육연구의 발걸음은 아직 막 단서를 잡은 상태이다.⁷⁾ 그래도, 일본이나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교육의 커리큘럼이나 교과서, 수업을 비교적 검토함으로써 서로의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과교육의 공통점과 상이점(相違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지금까지 한·일의 사회과교육연구는 각 국가의 문맥에서 얘기되어 왔다.⁸⁾ 전후, 일본에서는 「사회과」, 한국에서는 「사회생활과」로 한·일의 사회과교육이 시작했지만⁹⁾, 「시민성」을 둘러싼 교육의 모습은 정치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변모를 이뤄왔다. 그래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과」라고 하는 교과와 틀 안에서 초등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적인 사회를 실현한다고 하는 사회과의 이념은 이러한 역사적 문맥 중에서 계승되어져 온 것이다.¹⁰⁾ 그러나 한·일의 사회과교육연구의 현재 상태¹¹⁾를 보면 양국이 독자적인 연구 방법의 문맥에서

-
- 5) 학교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현재 상태에 관해서는 「교육 활동 전체를 통해서 인권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적 이해에 머무르고, 인권 감각이 충분히 배워지지 않고 있는 등 지도 방법의 문제, 교직원에게 인권 존중의 이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반드시 널리 퍼져 있지는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권교육에서 관한 대처를 한층 개선·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6) 와카츠키(若槻)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담당하는(만드는) 인간의 육성」으로 파악해, 인권교육에 기반을 둔 시민성을 제기하고 있다.(若槻: 2014, pp.44-45)
 - 7)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동아시아적인 관점을 포함시킨 다중적 시민의 육성을 목표로 한 비교 사회과 교육연구가 시도되어 있다. 永田忠道(研究代表者), 『日本と韓国における市民性に関する比較教育史研究』 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B), 2013.
 - 8) 한국의 시민교육연구에서는 「시민교육의 역사」를 ①민족주의적 시민교육(해방 이후 1960년까지의 기간), ②국민 동원적 민주시민교육(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 ③자유주의적 시민교육(1980년대 6월 항쟁 이후), ④현재의 상황이란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심성보: 2011) 이들 관점은 시민교육의 역사를 정치 권력과 교육적 과제와의 관계에서 포착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본의 시기 구분과는 다른 점이 많다.
 - 9) 일본의 초기 사회과와 한국의 사회과의 편성 원리를 대비하고, 「일본의 초기 사회과는 미국의 근대 학교의 교육 원리를 도입하고, 민주주의적인 시민성 교육을 실현하려고 한 점에서, 사회생활과의 도입과 함께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지향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과의 목표·내용·방법이 원리적인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남수, 「일본의 초기 사회과에 있어서의 시민성 교육의 원리」 『사회과교육연구』 제21권 1호, 2014, p.78.
 - 10) 일본 사회과교육사의 대표적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片上宗二, 『日本社会科成立史』, 風間書房, 1993. 木村博一, 『日本社会科の成立理念とカリキュラム』, 風間書房, 2006.
 - 11) 현재 한국의 초등 사회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은 주로 6학년 2학기에 배당되고 있다. 예를 들면, 중단원 「인권과 인권의 보호」에서는 「인권의 의미와 인권의 발달」,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4개 소단원이 제시되고 있다.(서재천: 2012) 한국 인권교육의 이론으로는 국가인권위

서로의 상위점에 주목해 논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은 아닌가? 그러나 국경을 넘은 교육적 과제를 생각해가기 위해서는 공통점에야말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현대 한·일의 사회과교육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상기의 과제를 생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일본과 한국의 사회과교육연구를 「시민성」의 육성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재인식한다. 현대를 기점으로 해 「시민성」을 육성하는 사회과교육의 내실을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의 「인권」 기술을 토대로 하여 한·일에 공통된 인권교육의 과제를 서로 배우고, 상호의 「시민성」을 높이는 사회과교육에 기여하는 방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인권교육을 둘러싼 상황을 돌아보면서, 초등 사회과의 커리큘럼이나 교과서의 기술을 토대로, 「시민성」을 육성하는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고찰한다. 그것에 의해 앞으로 한·일의 초등 사회과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2. 일본의 인권교육을 둘러싼 상황과 사회과의 커리큘럼

일본에서는 2008년에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고시되어, 사회과도 그것에 따른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다.¹²⁾ 소학교의 사회과 개정 목표의 요점은 「아동이 사회 생활이나 우리나라의 국토에 대한 이해와 자연 재해 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심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초적·기본적인 지식·기능을 활용하고 학습 문제를 추구·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학년의 단계에 따라 관찰, 조사하거나, 지도나 지구본, 통계, 연표 등의 각종 기초적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사회적 현상의 의미나 기능 등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거나 하는 힘을 키우는 것」의 2가지이다.

그 목표에 맞춰서 개선된 학습 내용으로 인권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3학년 및 4학년의 지역에 관한 학습에서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법이나 규정에 대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 또, 5학년에서는 「정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교육, 복지, 의료, 방재 등 중에서 선택해서 다룰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제6학년에서는 「국회와 내각과 재판소의 3권상호의 관련, 국민의 사법 참가」라는 문구가 추가되고 있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에 추가된 문구로부터 인권교육에 관한 학습 내용을 검토하면, 법이나 규정에 관한 법교육의 관점이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학년 및 4학년의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법이나 규정에 대해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와 관련해, 내용의 취급에서는 지역의 건강한 생활이나 생활 환경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이 자원의 재이용이나 생활 배수의 적절한 처리 등에 관한 법이나 규정을 지키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법이나 자기들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동들이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사고의 방지」에서는 지역 사람들이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을 호소하거나, 아동들에게 가르치거나 해서, 지역의 사고 방지나 방법에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을 다룸으로써,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지역이 안전한 생활을

원회가 제시한 「인권의 교육」, 「인권에 의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인권을 통한 교육」에 의해, 인권의 개념과 내용에 근거해서 인권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인권 판단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박상준 :2013)

12) 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社会科編』, 2008.

영위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고 있다.

5학년에서는 「공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을 지키는 것의 중요함」에서 산업 발전, 생활 양식 변화나 도시화의 진전 등에 의해 증가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의 결과로서 사람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공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활 환경이 위협받아 온 것, 관계 제 기관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공해의 방지나 생활 환경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는 것을 다루고 있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공공 서비스의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교육, 복지, 의료, 방재 등 중에서 선택해서 다룰 것」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정보 네트워크의 편리성에 주목하고,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사람들의 생활의 향상이 도모되어 온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생활할 필요가 있는 것, 정보의 발신자로서 발신하는 정보에 책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등이 지적되고 있다.

6학년에서는 「일본국 헌법은 국가의 이상, 천황의 지위,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 등 국가나 국민 생활의 기본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국 헌법에 제시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민주권, 평화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대상으로 해 조사하는 것,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는 것,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 평화를 회구하고 그 실현이나 유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 것, 일본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있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국민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에서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는 침범할 수 없는 영구적 권리로서 국민에게 보장된 것이라는 점,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표시이며, 민주 정치에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것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다. 그 위에 「국회와 내각과 재판소의 3권 상호의 관련」에서는 3권이 각각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3권이 상호간에 서로 관련되고 있는 것 등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새롭게 부가된 「국민의 사법 참가」에서는 국민이 재판에 참가하는 재판원 제도를 대상으로 해, 법률에 근거해서 행하여지는 재판과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 교류나 국제 협력의 모습 및 평화로운 국제 사회의 실현에 노력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활동」에서는 세계의 사람들과 서로 친선이나 이해를 깊게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나 세계의 평화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소학교의 학습지도요령 중에서는 사회과의 목표나 내용에 인권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학습 방법에서도 사회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중시되어, 3학년 및 4학년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현상의 특색이나 상호의 관련 등에 대해 생각하는 힘, 5학년에서는 사회적 현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힘, 6학년에서는 사회적 현상의 의미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3.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 기술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¹³⁾에는 「인권」이 어떻게 기술되고 있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자료1】의 관점을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적 관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13) 일본에서는 교과서가 검정제이기 때문에 복수의 교과서 회사에서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채택율이나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인 『새로운 사회』(도쿄서적, 2011년)를 대상으로 하여 고찰했다.

〈표 1〉 교과서에서 고려해야 할 인권적 관점

영역	인권적 관점
내용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담겨 있는가? ·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가? · 인권에 관한 조약이나 제도의 중요성이 취급되고 있는가? · 우리들의 사회의 인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 있는가? · 인권 내용을 다룰 때에 인권 침해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 내용을 다룰 때에 아동들의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권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사회 참가를 강조하고 있는가? · 인권이 다양한 목록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 ·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내용을 취급할 때, 아동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가? · 인권에 관한 문제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인권에 관해 아동들 간에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제시하고 있는가? · 관례화한 반인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 소수 집단을 멸시하는 용어나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가?
서술과 삽화 의 제 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현상에 대해 인권을 고려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가? ·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가? ·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회적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가? ·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이해하고 어프로치하고 있는가? · 사회의 주류의 관점만을 대상으로 해 다양성을 손상하고 있지 않는가? · 글로벌한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부분적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내용에 편견이나 고정 관념이 없는가? ·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 소수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주인공으로 하거나, 역할의 모델로 나타내거나 할 때에, 현저하게 낮은 비율로 등장하고 있지 않는가? · 종교를 다루는 내용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가?

【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2007년 9월, 2-3쪽에서 필자 작성.

3학년 및 4학년의 사회과 교과서에는 「사고나 사건으로부터 생활을 지킨다」의 단원 중에서 「자전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고 있다.

생활안전과의 마쓰시마(松島)씨의 이야기(하권, 25쪽)

역 앞은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으면 몸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나 노인에게는 매우 걷기 어렵고 위험합니다. 또, 자전거를 탈 때도 도로교통법 등의 법이나 규정을 지키고, 걷는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서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거리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른 과와도 협력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규정」에서는 교통에 관한 법이나 규정이 안심하고 매일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의 하나라는 점

이 기술되어,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법이나 규정을 모두 같이 생각하고 소중히 해 가는 노력이 불가결한 것이 강조되고 있다.

「쓰레기 처리와 이용」의 단원에서는 「쓰레기 두는 곳의 모습」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수집 작업원 요코타(横田)씨의 이야기(하권, 57쪽)

쓰레기를 분류하여 내놓는 것으로 주 2일 모으는 태우는 쓰레기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수거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아직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도 가끔 있기 때문에 봉인지를 붙여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분류하여 내놓는 것에 의해 또한 이용할 수 있는 자원도 모으기 쉬워졌습니다.

「쓰레기 두는 곳의 모양」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마다에 나누고 있기 시작하는 것으로, 쓰레기를 모두 태우는 것이 아니고, 자원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꺼내고, 많이 어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기술되고 있다.

이처럼 3학년 및 4학년에서는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중요한 법이나 규정」에 관한 부분에서 「인권」 기술을 볼 수 있다.

5학년의 「추운 토지의 사람들의 생활」의 단원에서는 「지켜 온 문화를 계승한다」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지켜 온 문화를 계승한다(상권, 43쪽)

홋카이도에서 옛날부터 생활하고 있었던 것은 아이누의 사람들입니다. 아이누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해 왔을까요? 아이누의 사람들은 신변에 있는 나무나 풀 등으로 만든 치세(아이누족의 전통 건물: 역자 주)에 살고, 물고기나 동물, 산채를 채집하거나, 조 등의 잡곡을 재배하거나 하며 풍부한 자연의 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만물이나 살아 있는 것에 가무이(신)가 있다고 느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혼슈나 러시아 등과 교류해서 비단이나 목면, 칠기 등을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아이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승해 온 문화의 좋은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동시에, 다음 세대에 이어 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간토(關東)지방에 사는 아이누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들의 전통과 현대의 새로운 음악을 조합시킨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그룹도 있습니다.

「지켜 온 문화를 계승한다」에서는 「AINU REBELS의 사카이(酒井)씨의 이야기」(상권, 43쪽) 중에 「선조로부터 계승되어 온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음악과 전통적인 음악을 합쳐서 새로운 아이누 문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누로 태어난 자부심을 가슴에 안고, 아이누 문화의 물결을 사회에 일으켜 가고 싶다고 생각해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술도 있어, 일본 문화의 다양성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있다.

「정보를 활용하는 우리들」의 단원에서는 「수신하는 정보, 발신하는 정보」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수신하는 정보, 발신하는 정보(하권, 76쪽)

슈지군 등은 정보화에 관한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을지를 서로 얘기해보았습니다. 「PC나 휴대폰은 최근 10년 정도에 널리 퍼졌습니다.」, 「PC나 휴대폰의 보급과 인터넷이 원인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이지메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편리한 것이 늘어났습니다만, 인터넷을 사용한 범죄나 이지메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도 있어 좋은 것 만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슈지군 등은 인터넷을 사용해서 정보를 발신할 때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서로 얘기했습니다. 「인터넷의 특징으로서 상대가 보이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한 번 인터넷을 통해 흘려버린 정보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개인 정보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를 발신할 때는 그 흘린 정보에 의해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하는 것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지군 등은 수신하는 측을 생각해, 자신들로부터 정보를 발신할 경우에 주의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신하는 정보, 발신하는 정보」에서는 미디어가 전하는 많은 정보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골라내고 활용하는 능력이나 기능으로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이 서술되고 있다.

「공해를 넘어」의 단원에서는 「미나마타에서 발생한 공해」 중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고 있다.

미나마타에서 발생한 공해(하권, 110-111쪽)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을 무렵, 각지에 공해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구마모토현(熊本縣) 미나마타시 주변에서 일어난 미나마타병이란 어떤 병이었던 것일까요. 「미나마타시에서는 한 공장이 흘려보낸 유기 수은을 물고기가 집어먹어, 그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나 고양이가 병이 났다고 합니다.」, 「손이나 발이 마비되거나, 눈이나 귀가 부자유스럽게 되거나 한 아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1956(쇼와 31)년에 그 병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 1995(헤이세이 7)년과 2010(헤이세이 22)년의 2차례, 환자들과 정부가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미나마타시에는 이러한 슬픈 사건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타이이타이병, 윗카이치(四日市) 천식, 니가타(新潟) 미나마타병을 합쳐서 4대 공해병이라고 합니다. 미나마타병 이외는 어떤 공해였던 것일까요?」 우리들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환경이나 사람들의 생활을 지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나마타에서 발생한 공해」에서는 공업이 발전한 반면에 어떤 공해가 발생했는가를 생각하게 하고, 환경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미나마타시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응이 기술되고 있다. 이처럼 5학년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공해의 방지나 생활 환경의 개선이 도모되고 있는 부분에서 「인권」 기술을 볼 수 있다.

6학년의 「전국의 세상에서 에도 시대로」의 단원에서는 「생활과 신분」 중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생활과 신분 (상권, 76-77쪽)

에도 시대의 사회는 지배자인 무사를 비롯해, 백성이나 조닌(町人) 등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사나 조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시대부터 정치나 경제의 중심인 조카마치(城下町)에 모아졌습니다. 에도를 비롯해 전국에 만들어진 조카마치에서는 영주나 그 부하들이 사는 부케지(武家地), 절이나 신사(神社)의 지역, 조닌지(町人地) 등 신분에 따라 사는 장소가 결정되었습니다. 조닌지에서는 조닌들이 조(町)라고 하는 작은 사회에 모여 상업이나 수공업, 유통, 문화 등 다양한 일을 영위했습니다. 도시에는 조카마치 이외에 몬젠마치(門前町: 신사나 절 앞의 시가지)나 항구 거리(港町), 여관 거리(宿場町), 광산 거리(鉱山町) 등이 있었습니다. 에도시대 인구의 80% 이상은 백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농촌이나 산촌, 어촌에 살고, 농업이나 산일, 어업 등을 경영하여 쌀을 비롯한 농산물을 만들고, 산이나 바다로부터 자연의 은혜를 얻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묘슈(名主; =庄屋)라고 불리는 유력자를 중심으로 자신들이 마을을 운영했습니다. 막부나 번은 이러한 마을의 통합을 이용해 고닌구미(五人組)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게 해서, 수확의 반이나 되는 무거운 연공(세)을 바치게 하거나, 여러 가지 역(육체노동)을 시키거나 했습니다. 이외에, 황족이나 조정(귀족), 승려나 신관 등의 종교인, 노우(能)나 가부키를 비롯한 예술인, 화가, 학자, 의사 등 많은 신분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백성이나 조닌과는 달리 엄격하게 차별되어 온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생활과 신분」에서는 엄격하게 차별되어 온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서의 본문 이외의 기술에서도 백성이나 조닌과는 달리 엄격하게 차별되어 온 신분의 사람들이 일이나 사는 장소, 옷차림에서 백성이나 조닌과는 구별되고, 촌이나 거리의 축제에 참가가 거부되는 등 엄격한 차별 아래 놓여져, 막부나 번도 차별을 강화했던 것, 이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 중에서도 농업이나 수공업을 경영하고, 예능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치안 등을 담당해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던 것 등이 기술되고 있다.

「세계로 걷기 시작한 일본」의 단원에서는 「생활이나 사회의 변화」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생활이나 사회의 변화 (상권, 122-123쪽)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은 높아지고,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이 널리 전개된 결과, 25세 이상의 모든 남자가 중의원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운동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성보다 낮게 여겨져 차별되어 온 여성들은 히라츠카 라이테우(平塚らいてう)나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을 중심으로 선거권 등의 권리 획득, 여성이나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메이지에 들어와 신분제도가 바뀌고 나서도 취직이나 결혼 등에서 차별되고 고통을 받아 온 사람들은 전국 수평사(水平社)를 만들고 차별을 없애는 운동에 일어섰습니다.

「생활이나 사회의 변화」에서는 민주주의의 시작으로 교육이 널리 퍼지고 생활이 풍요롭게 되자,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왕성해진 것이 기술되고 있다. 또한, 「오래 계속된 전쟁과 사람들의 생활」의 단원에서는 「전쟁과 조선의 사람들」 중에서 조선인이나 중국인의 사람들에게 대한 강제적인 노동에 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전쟁과 조선의 사람들 (상권, 131쪽)

전쟁이 길어지고 일본에 일할 사람이 적어지게 되자 다수의 조선인이나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혹독한 조건 아래에서, 심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인은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거나, 신사에 참배하도록 하거나 했습니다. 게다가,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되고 젊은 여성도 공장에서 일하게 하여 전쟁에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본, 평화로운 일본에」의 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를 지향해서」 중에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본국 헌법의 제정이나 여성의 선거권 등 전후 개혁이 진행된 것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고 있다.

민주주의에 의한 국가를 지향해서(상권, 142쪽)

폐전에 의해 일본은 미국 등의 연합군에 점령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합군의 지도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로서 재출발하기 위해 여성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를 비롯해, 전후 개혁이라고 불리는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일본국 헌법도 이때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개혁이 있었던 것인가, 도서관에서 조사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혁이 행해진 무렵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때의 기분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전후,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과 교과서인 『새로운 헌법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평화주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헌법에 관한 교과서 「새로운 헌법의 이야기」의 평화주의에 관한 내용 (상권, 143쪽)

이번 헌법에서는 일본이란 국가가 결코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하나는 군인도 군함도 비행기도 무릇 전쟁을 하기 위한 물건은 일체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략)… 이제부터 장차 일본에는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불안하게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옳은 것을 다른 나라보다도 앞서 한 것입니다. 세상에 옳은 것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부터의 일본을 생각하자」에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제부터의 일본을 생각하자(상권, 148쪽)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든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보다 좋게 보다 풍요롭게 살고 싶다.』고 각 시대의 사람들이 노력해 온 결과이네요.」 「그러나 아직 과제도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지 서로 얘기하고,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되면 좋을지 생각해봐요.」

- 노인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되고 있는가?
- 아동의 권리는 어떤가?
- 여성의 인권이나 사회 참가의 권리는 어떤가?
- 역사에서 학습해 온 차별을 없애는 문제는 해결된 것일까?
- 아이누 민족, 재일 한국·조선인,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어떤가?
- 한센병 등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은 어떤가?
- 또한, 공해나 식량자급율의 저하, 경제 불황, 전쟁과 평화 등의 문제는 어떤가?

이처럼 6학년의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앞으로의 일본을 생각해 가기 위해 「인권」 기술이 중시되고 있다. 특히, 일본 역사 중에서 생겨난 차별 의식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확산에 의해 정착해 온 「인권」을 존중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과서 중에서 강조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과 일본국 헌법」의 단원에서는 「시의 정책과 일본국 헌법」 중에 일본국 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국민주권, 평화주의의 3가지 원칙이 있는 것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의 정책과 일본국 헌법(하권, 28-29쪽)

요우코 등은 사카이시(堺市)가 어떤 생각으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지, 시청에서 들어 보았습니다. 일본국 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국민주권, 평화주의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이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입니다. 「인권만남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만남 페어는 인권의 소중함을 모두에게 전하는 행사이기도 하네요.」 「헌법의 3가지 원칙에 대해 시의 정책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자.」

또한, 사카이시(堺市)가 진행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와 인권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청의 오카바야시(岡林)씨의 이야기(하권, 28쪽)

사카이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하고, 참가할 수 있는 「자유 도시·사카이」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환대」의 마음을 마을 만들기에 살리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례나 제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사람의 시선에 선 유니버설 디자인에 의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사카이시가 진척시키고 있는 이러한 정책이나 일은 모두 일본국 헌법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치와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에서는 인권만남 센터에서의 견학을 바탕으로 식자(識字)·다문화공생 학습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의 정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하권, 30-31쪽)

요우코 등은 인권만남 센터에 견학을 가서 어른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고 있는 식사·다문화공생 학급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글을 모르면 밖에서 식사를 하는 데에도 곤란하고, 쇼핑하러 가도 값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불안했다고 합니다.」 「글자의 읽고 쓰기를 배우으로써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네요. 학급에는 일본어를 배우는 외국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카이시(堺市)에서는 야간 중학교에서의 학습도 하고 있네요. 교육을 받는 권리는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은 위의 그림과 같이 다양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국민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헌법이 정한 권리를 바르게 행사함과 동시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들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는 데에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의 정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서는 「기본적 인권」이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으로서 존중되는 것은 헌법에도 적혀 있다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시의 정치와 국민 주권」에서는 「주권」이란 국가의 정치의 모습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국민주권이란 국민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해진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시의 정치와 평화주의」에서는 사카이시의 「평화와 인권자료관」의 모습이나 일본국 헌법에 제시된 평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의 정치와 평화주의(하권, 34-35쪽)

사카이시의 「평화와 인권자료관」은 전쟁의 비참함, 평화의 귀중함,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역사 학습에서 배운 것 같이 전쟁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생활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일본국 헌법의 전문에는 평화에 대한 맹세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민의 결의를 제시한 것입니다. 헌법 조문에서는 외국과의 다툼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를 위한 전력(戰力)을 갖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와 정부는 「핵병기를 가지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가져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비핵 3원칙)을 정하고, 평화주의의 정신을 실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을 중심으로 전쟁에서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령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식전이 일본의 각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폭이 떨어뜨려진 일본은 세계에서 단 하나의 피폭국으로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중요함이나 핵병기를 없앨 것을 계속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의 일본」에서는 세계의 국가가 각각의 문화나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 앞으로의 일본(하권, 74쪽)

세계에는 많은 국가나 지역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각각의 문화나 전통을 소중히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문화나 전통을 소중히 하는 한편, 서로의 문화나 전통을 서로 이해해, 차별이나 편견이 없이 교류하는 것이 세계의 사람들과 손을 맞잡는 첫 걸음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모두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세계로 만들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모두가 살고 있는 돌도 없는 지구를 지켜 가기 위해서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도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네요.」

4.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 기술의 특색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 기술을 각 학년으로 비교해 보면, 3학년에서 6학년으로 학년이 진행함에 따라 구체적인 「인권」 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6학년은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 국제이해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의 3개 단원으로 크게 구성되고 있지만, 역사적인 내용과 정치적인 내용의 단원에 「인권」 기술에 배려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신분제도에 의해 「인권」이 제한되고 있었던 시대를 배움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모습을 아동들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 진행되어 온 동화문제에 대한 대응과 인권교육의 발자취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1965년에 「동화대책심의회 답신」이 나온 후, 1969년에는 「동화대책사업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도 동화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책이 오늘까지 계속하고 있다.¹⁴⁾

이러한 신분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의 역사적 전개라고 하는 관점이 초등 사회과 교과서 주에 「인권」 기술로서 기재되고 있다. 6학년의 「전국의 세상에서 에도 시대로」의 단원에서는 「생활과 신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권」 기술이 보인다. 이 단원의 목적에는 백성이나 조닌과는 다른 신분으로 간주되어 거주지나 교제에서 제한을 받기도 했다는 것을 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메이지의 새로운 세상」에서는 백성과 조닌과는 달리 엄격하게 차별되어 온 사람들이 「해방령」에 의해 법적으로는 평민과 동등해졌지만, 그 후는 생활이 곤궁해지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신분제도에 의한 차별을 인권 침해라고 파악해 아동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관점은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보이는 특징이다.

한편,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와 자유민권운동」,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국회 개설, 대일본제국 헌법」과 같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획득되어 온 것인가를 아동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기술도 보인다. 근대적인 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생겨난 생활이나 사회의 변화를 학습하면서, 「자유 민권」이란 사상이나 「국회 개설」의 움직임 등의 기술을 통해 「인권」의 바람직한 모습을 파악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계로 걷기 시작한 일본」의 단원에서는 「생활이나 사회의 변화」 중에서 보통선거를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된 것은 「인권」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의 고

14) 예를 들면,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 준거해서 교육 실천의 단서가 되도록 최근의 동화교육을 둘러싼 상황, 인권교육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과제, 동화문제를 비롯한 인권교육에 관계되는 연구의 성과나 관계 자료 등을 정리하고 있다. 『小学校・中学校 社会 人權・同和教育基本資料』, 東京書籍, 2010.

조나 사회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 등 「인권」의 관점을 아동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아시오 동산(尾尾銅山)사건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한 「다나카 쇼조(田中正造)」를 들고 있다.

또한, 「오래 계속된 전쟁과 사람들의 생활」의 단원에서는 「전쟁과 조선의 사람들」 중에서 전시 중의 조선 인이나 중국인에 대한 강제 노동이나 창씨개명 등 인권 침해의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전후의 민주적인 개혁 과정에서는 「새로운 일본, 평화로운 일본」의 단원에서 『새로운 헌법의 이야기』가 「인권」을 생각하는 자료로써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의 정리로서 「이제부터의 일본을 생각하자」 중에 「고령자」, 「장애인」, 「아동」, 「여성」, 「아이누 민족」, 「재일 한국·조선인」, 「외국인」, 「한센병 등의 병에 걸린 사람들」 등, 앞으로의 일본을 생각해 가기 위한 관점으로 이들의 「인권」 기술이 중시되고 있다.

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단원에서는 「국회의 활동」 「재판소의 활동」의 단원에서 국민이 정치에 참가하기 위해 중요한 권리인 것,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권」에 관한 기술로 보인다. 특히, 최근 시작된 「재판원 제도」는 국민의 감각이나 시점을 재판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기술되고 있다. 또한, 「우리들의 생활과 일본국 헌법」의 단원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국민주권」, 「평화주의」의 3가지 원칙이 일본국 헌법의 이념이 되고 있는 것을 「인권」 기술로서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의 사례로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권」 기술의 구체적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다. 게다가, 「시의 정치와 기본적 인권의 존중」에서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권」 기술로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일본국 헌법의 「평화주의」의 이념과도 결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시의 정치와 평화주의」에서는 「일본국 헌법의 전문」이나 「평화와 인권자료관」 등이 「인권」 기술로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인권」 기술은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생활을 지킨다」, 「지켜 온 문화를 계승한다」와 같은 3학년 및 4학년에서의 지역학습, 「정보를 살리는 우리들」 「환경을 지키는 우리들」과 같은 5학년에서의 산업학습, 국토학습 등을 바탕으로 해서, 6학년에서의 역사학습, 정치학습, 국제이해학습에서 종합적으로 「인권」을 배워 가는 것이 되고 있다.

5. 성과와 과제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인권」 기술의 비교를 통해, 「시민성」을 육성하는 인권 교육의 관점을 고찰했다. 본고에서 밝혀진 것은 다음 3가지이다.

첫째로, 시민성을 육성하는 한·일의 공통적인 과제는 「인권」 기술을 바탕으로 수업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일본과 한국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구성에서 큰 차이는 역사학습이 위치하고 있는 학년이다. 일본에서는 6학년에서 역사학습을 배운 후에 정치학습이나 국제이해학습에 나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5학년에서 역사학습을 1년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시민성을 관점으로 해서 「인권」 기술을 학습하는 내용 배열¹⁵⁾을 보면, 6학년이 가장 비율이 높은 기술이 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인권」의 내용을 다루는 단원이 6

15) 뱅크스는 「다문화적인 국민국가에 있어서 시민성 교육의 코스나 프로그램을 인권교육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다양성,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지속가능한 개발, 제국·제국주의·권력, 편견·차별·인종주의, 이주, 아이덴티티·다양성, 다원적인 시점, 제국주의와 세계주의 등의 개념을 들고 있다. (뱅크스:2006)

학년에 많이 배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과서 분석의 관점에서 한·일에서 시민성을 다루는 학습 내용을 공동적으로 개발해 갈 경우, 6학년에 위치하고 있는 「인권」 기술을 바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한·일에서 공통해서 과제가 되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 「아동」, 「외국인」, 「상병자(傷病者)」 등에 대한 인권 침해의 과제는 각각의 국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학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⁶⁾

둘째로, 시민성을 육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으로 현재 사회과에서의 스코프와 시퀀스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3학년 및 4학년에서 지역학습을 전개하고 있지만, 상위점도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4학년에 배당되고 있는 마이너리티(minority)에 대한 「인권」 기술이다. 이것은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급속히 다문화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6학년의 최후에 국제이해학습이 위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 기술은 보이지만, 외국인이나 성적 소수자 등 국내의 다른 마이너리티에 대한 「인권」 기술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¹⁷⁾ 한편, 한국에서는 4학년에서 이미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인권」 기술이 많이 보인다. 서로의 국가의 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하면서, 아동들의 발달 단계를 파악한 시민성 육성을 위한 커리큘럼의 개발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동심원적인 확대에 근거한 사회과의 학습 내용의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사회과교육연구에서 교사와 아동이 시민성을 육성할 수 있는 유연한 스코프와 시퀀스를 생각해 갈 필요가 있다.

셋째로, 정보화나 과학 기술의 진전에 의해 생기는 새로운 「인권」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시민성이 요구되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가는 것이다. 「인권」 기술의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전개를 되돌아보면,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역사적인 학습의 서술 내용에는 큰 차이가 보인다. 일본에서는 근세·근대의 신분 제도로부터 인권 문제를 읽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는 근대 민주주의의 과정보다도 평화적인 정권 교대에 의한 민주화의 과정이 「인권」 기술로서 중시되고, 이러한 배경에는 근대 식민지 지배의 문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도 전시 중 조선인·중국인에 대한 강제 노동의 문제가 「인권」 기술로서 기재되고 있지만, 한국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분량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 문제의 상극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교과서 기술의 서술 양식으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⁸⁾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과 한국의 역사의 틈을 메워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시민성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인권」 기술에 배려함으로써 교과서 기술의 서술 양식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형성을 위해 한·일을 전망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현대 일본의 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인권」 기술의 분석을 통해 「시민성」을 육성

16) 이러한 한·일의 비교 수업 연구 어프로치로서 아동·학생에게 기대되는 시민성의 육성에 관계해, 공적 판단의 확인과 이해를 촉진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권교육으로서의 시민성 육성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梅野正信, 『判決書を活用した人権教育としての市民性教育に関する日韓の授業研究』, 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実績報告書, 2011.

17) 「人権教育・啓発に関する基本計画」에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인권 과제에 대한 대응은 물론, 동 계획이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인권 문제, 예를 들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성적 지향에 관계된 문제나 새롭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등 그 외의 과제에 대해서도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응해서 그 해결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행한다」고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하는 편견·차별을 없애고,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계발 활동」, 「노숙자의 인권 및 노숙자의 자립 지원 등」, 「성동일(性同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동일본대진재에 동반한 인권 계발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法務省, 『平成25年度版 人権教育・啓発白書』, 2013.

18)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을 생각하는 데에 「일반적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교과서에 어떤 역사적 사실이 어떤 분량으로 설명되어 있는가 하는 원래의 전제조차 공유되지 않은 채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二谷貞夫·梅野正信編, 『日韓で考える歴史教育-教科書比較ととも-』, 明石書店, 2010, p.4.

하는 한·일 인권교육의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본고에서의 고찰을 토대로 전후의 일본과 한국의 초등 사회과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교과서 기술, 수업 실천을 비교하고, 시민성 교육의 역사 연구 방법론이나 틀을 분명히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片上宗二, 『日本社会科成立史』, 風間書房, 1993.
- 木村博一, 『日本社会科の成立理念とカリキュラム』, 風間書房, 2006.
- 上田薫編, 『社会科教育史資料 1-4』, 東京法令, 1974-76.
- ジェームス・A・バンクスほか著, 平沢安政訳, 『民主主義と多文化教育—グローバル化時代における市民性教育のための原則と概念—』, 明石書店, 2006.
- 若槻健, 『未来を切り拓く市民性教育』, 関西大学出版部, 2014.
- 憲法教育研究会編, 『憲法とそれぞれの人権 第2版』, 法律文化社, 2014.
- 上杉孝實・平沢安政・松波めぐみ編著, 『人権総合教育年表—同和教育, 国際理解教育から生涯学習まで—』, 明石書店, 2013.
- 国際理解教育学会編, 『現代 国際理解教育辞典』, 明石書店, 2012.
- 文部科学省,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 社会科編』, 2008.
- 심성보, 『인간과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살림터, 2011.
- 서재천, 『초등사회과 신미교육』, 학지사, 2012.
- 박상준, 『사회과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2013.
-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인권교육탐구』, 교육과학사, 2013.
- 허영식·신두철 공편, 『민주시민교육핸드북』, 오름, 2007.
- 허영식·신두철 공편, 『민주시민교육핸드북Ⅱ: 방법론』, 오름, 2009.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설명회』, 2007.
- 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 교육과정』, 2012.